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높아진 환경 및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주로 환경오염 및 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정책기본법」(1990)과 「자연환경보전법」(1991) 등 환경 관련 법제들이 정비되었다. 경관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1981)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 등에서 난개발에 따른 국토경관의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경관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2007년에 비로소 「경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2014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국토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개정하고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심의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선포함으로써 국토경관이 국토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책무임을 선언하였다.

「경관법」 제정은 정부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경관 형성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 댐, 고압송전선 등의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에 대비한 국토경관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국토경관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관법」과 국토경관헌장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경관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터전이 마련되었다.

경관의 중요성 인식

경관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한 요소이며, 매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최근에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듯이, 경관도 훼손되고 난 뒤에야 이를 후회함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파리도 빼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오늘의 세계적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되었다. 1970년대 전후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7, 8층 건물이 대부분인 도심지의 몽파르나스역에 59층, 210m의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난 뒤 파리 시민들은 비로소 고층 빌딩이 파리 도심의 경관 특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도심지 전체를 오늘날 보는 것처럼 7, 8층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켜내게 되었다.

우리 서울도 남산 조망을 차단하는 16, 17층 외인아파트 두 동이 1972년 남산 중턱에 들어서고 난 후 비로소 남산의 경관가치를 깨닫고 후회하였으며, 20여 년이 지난 1994년에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허물었던 기억이 있다. 사전에 경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많은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20년 이상 모든 시민이 흥물을 보며 찡그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국토경관은 국민의 자화상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게 되면, 즉 경관의 형성 인자를 알게 되면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골격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이며, 자연환경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생태적 원리이다. 인간은 원시시대 이래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변화시키며 자연에 적응해 왔다.

인간은 이러한 적응 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을 변화시켜 정주환경을 만들며, 이러한 정주활동의 결과물이 문화경관으로서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인간이 문화경관을 조성함에 있어 상징성의 부여 행위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인간이 주변 사물에 자신의 자연관 혹은 우주관 등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시대의 전형적 연못인 방지(方



목호항 풍경

경관의 바탕은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연이며, 이 바탕 위에 인간의 적응활동이 문화경관을 만든다. 문화경관에는 장소성, 심미성, 사회적 가치가 담긴다.

池)에는 사각형의 연못 한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만들었는데, 이때 사각형 연못은 땅(陰)을 뜻하고 원형의 섬은 하늘(陽)을 의미한다. 음양이 결합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대자연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추구 행위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며, 기능적 측면의 적응활동과는 구별되는 미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와 같이 경관을 형성하는 인자는 생태적·문화적·심미적 인자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인자 등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국토경관이 형성되므로, 국토경관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단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경관에는 우리 국민의 정신과 문화가 배어 있어, 국토경관을 볼 때에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국토경관은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화상이다. 국토경관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가꾸

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 얼굴을 가꾸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야겠다.

국토경관의 지향 방향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적·문화적·심미적·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날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인간이 자연과 공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지역적·도시적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국토경관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현재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 박제된 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의 살아 있는 문화경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미적 측면에서는 계절의 변화 등 시간성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창조적 토지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평등한 경관복지를 위한 도시 및 농촌에서의 경관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관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경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경관의 다원성과 지향 방향

| 파라다임(지향점) | | | |
|--------------|----------------------------------|---------------------------------|-------------------------------------|
| | 현상 | 이념·철학 | 실천 |
| 국토경관의 다원성 | 친환경성 · 기후변화(온난화) · 자연재해 심화 | 자연과 인간의 공생 | · 그린인프라 구축 · 생태경관 보전 · 안전한 국토 |
| 친문화성 | · 시대별 가치관 변화 · 인구구조 변화 | 역사성의 계승과 동시대 가치 및 기술의 조화 | · 문화경관(장소성) 보전 · 무장애, 유비쿼터스 도입 |
| 친심미성 | · 계절 변화 · 인공요소 증대 · 선호도 변화 | 생태성·심미성·시간성의 창조적 융합 | · 공감각 · 토지예술 창조 |
| 친사회성 | · 계층 간 격차 · 사회적 자본의 증가 | · 평등한 생활환경·경관복지 · 주민이 경관의 주체 | · 도시·농촌 경관재생 · 주민이 만드는 경관 |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우선 할 일은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이를 경관형성 및 관리의 중심 철학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경관은 배경이 되는 산지와 함께, 물이 굽이쳐 흐르는 하천과 하천 주변의 농경지가 경관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인접한 산자락에는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인간적 척도를 이루어어서, 미학자인 고유섭 선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구수한 큰 멋’을 지닌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구릉지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관 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나 건물 등의 구조물로 인해 산지로의 조망이 차단되거나, 구조물이 너무 커서 산지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수한 큰 멋’을 지닌 우리 국토경관에서 또 하나의 특성은 반만년 살아온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재가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 합하여 1,000개가 넘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거의 모든 자연 부락에는 풍수에 얹힌 설화가 깃들어 있다. 유형·무형문화재 발굴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앞으로 더 발굴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로 국토 전체가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문화재를 품고 있는 국토경관은 박제화된 문화재와는 다른 ‘살아 있는 국가문화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경관이 우리의 소중한, 살아 있는 국가문화재라 한다면, 동시대 국토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새로 만들어 덧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잘못 만들어진 것을 하나씩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 관리의 기본으로 문화재가 지닌 진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국토경관의 미래상도 그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지켜내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묻어 있는 각종 무질서한 간판·현수막·전광판·가로등과 경관을 훼손하는 유아독존식의 건축물 등을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본래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국토 도시경관을 회복할 수 있다. 번뇌와 집착을 비워야 우리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국토 도시경관도 빼기와 비우기를 통해 본래의 맑고 순수한 고유 경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경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든 국민의 또 다른 ‘평생 반려자’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 물들지 않도록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참고문헌

- 1 윤의식(2006), “경관법 제정을 통해 본 국토경관정책 방향”, 「도시문제」2006년 8월호, pp.11-23.
- 2 임승빈(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pp.3-11.
- 3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4 임승빈(2010), “한국에서의 신경관주의”, 「신경관주의 국제심포지엄 자료」, 서울대학교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pp.35-51.
- 5 임승빈(2012), “신경관의 지평과 과제”, 「신경관심포지엄 ‘경관한류의 가능성 탐구’ 자료」,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pp.17-37.
- 6 임승빈(2016), “경관학序說”, 「제2회 경관아카데미 특강 자료」, 한국경관학회.
- 7 임승빈 외(2013), “경관인문학 서설”, 「造景觀」, 나무도시, pp.14-27.